

# 原典上에 表出되고 있는 心臟의 生理作用에 대한 語源的 考察

成樂箕<sup>1)</sup>

## I. 緒 論

現存하고 있는 醫學은 東西醫學을 不問하고 人體의 解剖, 生理, 病理를 基礎로 하여 疾病의 治療法이 設定되고 있기 때문에 醫學教育도 優先的으로 이들 세 科目을 基礎醫學科目으로 設定하여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같은 基礎醫學이라고 하여도 歷史的背景과 學問的 基本概念을 달리 하고 있는 東西醫學사이에는 여러 가지 面에서 懸隔한 差異가 存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西洋醫學에서는 解剖의 結果에 根據하여 治療法을 設定하고 있기 때문에 解剖, 生理, 病理中에서 解剖學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東洋醫學은 生理的結果에 根據하여 治療法을 設定하고 있기 때문에 生理學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解剖를 爲主로 한 西洋醫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臟器를 治療對象으로 設定하고 있으나 生理를 爲主로 한 東洋醫學에서는 個體의 어떤 部分도 全體와 分離가 不可하다는 相關性論理上에서 그 對象은 언제나 結合的이고 全體的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臟器의 相互相關作用은 어떤 것이며, 또한 自然界의 變化에 對해서는 어떤 模樣의 生理的相關性이 存在하는 지가 重要視되고 있다. 이처럼 東洋醫學은 自然科學을 바탕으로 한 西洋醫學과는 달리 自然哲學을 그 基本概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東西醫學의 生理觀을 理解하기

---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爲해서는 優先적으로 根本이 되고 原典을 正確히 研究, 把握하여 그 眞意를 理解할 필요가 있다.

本論說者는 이같은 理由上에서 心臟에 대한 東西醫學的인 生理作用을 原典에 表出되고 있는 語源을 根據로 考察하고자 한다.

語源을 根據로 心의 生理를 考察하는 理由는 東西醫學에서는 그 用語가 나타내는 漢字 그 自體에 定義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中國上古時代의 名稱이 그대로 傳承되고 있는 東西醫學的 五臟六腑의 名稱의 概念은 自然科學的인 側面에서 解釋하고 있는 西洋醫學과는 懸隔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觀點에서 心의 本質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우선 心字가 內包하고 있는 語源에 대한 徹底한 研究와 檢討가 必須不可缺하다고 생각된다.

## II. 本 論

### 1. 語源上에서 본 心의 意義

東洋醫學에서 본 心의 基本的인 性格은 心이라 일컫는 言語에 內包되어 있다. 從來에는 漢字에 대해서 表意文字라는 通念下에서 漢字의 字形만을 考察하면 모든 것이 解決된다는 그릇된 觀念이 있었는가 하면 字形이 變하면 그 意味도 변한다는 論理를 主張하는 學者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文字의 生成過程을 살펴보면 文字가 생기기 前에 言語가 存在 하였고 이 言語를 글로 表示하기 爲해서 文字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疑心의 余地가 없다. 예를 들면, 山이란 言語가 있었기 때문에 山이란 文字가, 人이란 言語가 있었기 때문에 人이란 文字로 그 言語를 글로 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言語를 표시하지 않고 意味만을 나타내는 不完全한 形態의 文字는 單한 字도 存在할 수가 없으며 이같은 論理上에서 漢文字란 單純하게 表意文字가 아니고 表語文字인 것이다.

東洋醫學의 바이블로 指稱되고 있는 中國最古의 醫書인 黃帝內經素問靈樞上(以下 原典으로 略稱)에 敎示하고 있는 '心'字는 造字法上에서 觀察하면 心臟을 그린 象形文字인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中國最古의 辭典인 說文(紀元前121年頃

後漢 許慎著)上에도 ‘人之心 身之中的 象形’이라 하였다.

또한 心字는 깊이 스며 들다, 배어 들어가다 등의 뜻을 지닌 泌, 浸, 侵 등과 같은 同系의 言語로 微細한 空間으로 스며들어간다. 라고 하는 基本意義를 담고 있다. 心臟에서 送出된 血液은 大動脈에서 細小한 血管으로 流出, 終局에는 全身의 毛細血管을 經由하여 各組織속에 까지 스며들어 가는 것으로, ‘스며들어 간다’라고 하는 點에 着眼하여 名命한 것이 心이라고 하는 文字인 것이다. 이처럼 心字는 ‘微細한 空間으로 스며 들어가다’라고 하는 意味外에 또 하나의 意味가 있다. 心을 ‘마음’이라고 表示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西洋醫學의 生理學에서 보면 人間의 精神活動의 根源인 神經中樞는 腦에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常識에 屬한 問題이지만, 人體解剖의 研究가 全無했던 古代人은 가슴 中心에 있는 心臟이 마음의 中樞도 된다고 看做하였다. 때문에 心臟의 搏動과 頭部에 위치한 ‘泉門’의 搏動이 相互 呼應하여 人間의 精神活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古代人은 心을 血液을 身體 구석구석까지 浸透, 循環시키는 器管外에 精神作用의 臟腑라고도 생각하였다. 흔히 物象을 생각하는 것을 表示할 때 ‘思’라는 文字를 사용한다. 이 文字는 田字와 心字로 構成되고 있다. 田은 ‘밭전’字가 아니고 ‘\*’로 頭部の 泉門을 나타내고 있으며 心은 前述한 바와 같이 心臟의 象形인 것이다. 따라서 胸部の 心臟搏動과 頭部泉門部の 波動과는 相互連繫하여 作動, 이들 兩者의 作用에 의해서 物像을 思考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古代人들의 心臟에 대한 生理觀인 것이다. 때문에 古典上에 表示되고 있는 心 또는 心經은 西洋醫學의 心臟作用가 腦作用(神經系)을 包含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論理上에서 東洋醫學의 心和 心經은 心臟技能의 疾患에 關係에 局限하지 않고 全臟器의 活動을 命令하고 支配하는 精神 및 神經系統까지 包含한 重要的 關係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靈樞·邪客篇>에 ‘心者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也’라 하였고 <素問·宣明五氣篇>에도 ‘心臟神’이라 心臟作用과 精神作用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原典上에 敎示되고 있는 心의 生理

一,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素問·靈蘭秘典論>

二, 心者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素問·六節臟象論>

三, 心藏神. 心主脈. 心惡熱. 心爲汗. 精氣并于心則喜. <素問·宣明五氣篇>

四,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邪弗能容也. 客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梭矣. <靈樞·邪客篇>

五, 主明則下安. 主不明則十二官危 <素問·靈蘭秘典論>

六, 手少陰氣絕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髮色不澤. 故其面黑如漆紫者血先死 <靈樞·經脈篇>

七, 心主舌 <素問·陰陽應象大論>

心氣通于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靈樞·脈度篇>

### Ⅲ. 考 察

一,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君主란 一國一城의 主體로서 發號施令의 뜻을 지닌 것으로 心을 國家統治의 各機關에 比喻해서 說明하고자 하고 있다.

神明이란 精神力과 같은 人間이 具有하고 있는 形而上的인 要素를 指稱하는 것으로 多様な 精神作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出’이란 字體上에서 ‘足’과 ‘穴’ 또는 ‘凹’의 組合된 文字로 足이 凹에서 上部로 나온 模樣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갑자기 어떤 物體가 出現한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나가다’ 보다는 오히려 ‘나타나다’라고 解釋하는 것이 原義에 가깝다. 이같은 觀點에서 原典上의 ‘神明出焉’이란 ‘人間의 精神作用이나 知力이라는 것은 心의 作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生理學的으로 말하면 그 臟器의 作用에 의해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라는 것으로 換言하면, 一切의 精神意識思惟는 全部 心의 技能에 歸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二, 心者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原典上에 ‘神之變’은 ‘神之處’의 誤記로 보는 學者가 많다. 왜냐하면 같은 脈絡上에 있는 肺, 腎의 項目上에서는 全部 ‘...之處’로 되고 있는 點을 보아서

도 ‘神明之便’이란 句節은 잘못된 것이라고 判斷된다.

原典上에 ‘神之處’의 ‘神’은 精神을, ‘處’란 멎어서 정착한다는 뜻으로 神之處란 精神의인 安着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멎추다. 멎다. 그치다<止. 停>보다는 묵다<泊>가 보다 正確한 表現이라 하겠다.

‘生之本’이란 生命의 根源을 意味하고 있다.

‘華’란 ‘花’와 같은 뜻으로 草木에 피는 꽃을 말하는 것으로 元來는 全部 華로 쓰던 것을 六朝時代에 이르러 略해서 花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華’란 外觀을 修飾한다는 뜻으로, 華麗하게 體表에 나타나는 現象이라는 뜻이다. ‘面’은 속에 頁<머리>가 있고 그 外側을 線으로 한 바퀴 뱅그르르 둘러싼 模樣이다. 얼굴의 外側을 둘러싼 그 둘러싸인 部分을 ‘面’이라고 하였으며, 後에 線으로 둘러싸인 平面을 ‘面’이라고 指稱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面’은 ‘얼굴’의 意味인 것이다. 따라서 ‘其華在面’이란 ‘心의 狀態는 顔面에 나타난다’라는 뜻이다.

‘充’은 ‘長’과 ‘高’의 뜻을 內包(說文), 子息을 養育하여 長大成人케 하는 意味를 지닌 것으로 忠實의 充은 그 派生語인 것이다. 原典上의 ‘其充在血脈’이란 心의 養育力은 血脈에 波及하고 있다는 뜻으로, 卽 血脈은 心力에 의해서 養育되고 忠實하게 進行되는 것이라는 意味인 것이다.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는 五行說에 依據한 解說이다.

### 三, 心藏神. 心主脈. 心惡熱. 心爲汗. 精氣并于心則喜.

‘心藏神’의 神이란 精神 卽 ‘마음’을, 藏은 ‘食庫’ ‘곳간’를 意味, ‘心’이라는 것은 그 속에 精神作用의 根源이 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心主脈’의 ‘主’는 主人을 意味, 一家의 主人은 家族을 指揮統率하여 一家의 安泰를 지키는 責任이 있다. 이같은 理由에서 ‘主’라는 字義를 ‘말다. 支配하다. 管理하다.’라고 解釋하고 있다. 따라서 ‘心主脈’이란 ‘心臟이라는 것은 經脈속을 流動하는 血脈을 適切하게 案配하는 것이다’라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心惡熱’의 ‘惡’는 ‘亞’와 ‘心’을 組合해서 成立되고 있는 形聲文字로 ‘亞’는 太古時代에 住居의 基址을 파내려 간 基盤의 形態를 위에서 그린 象形文字로서 建物を 建立할 때, 그 重力을 堪耐할 수가 있는 凹型의 土臺인 것이다. 그것을 人間의 心理에 比較한 것이 ‘惡’라고 하는 言語인 것이다. 짓눌리는 같은 壓力에 눌려서 上部로 나올 수가 없는 느낌을 ‘惡(메스꺼리다)’라고 한다. 무엇인가 가

슴이 메서 메속거릴 때, 嫌惡라고 하는 것도 이같은 根據에서 緣由 된 것이라 하겠다. 다른 짐 밑에서 押迫을 받는다는 것은 憎惡心을 일으키면서 메속거림을 誘發한다. 이같은 語源에서 惡를 '미움'으로 解釋하게 된 것이다.

'心爲汗'의 '爲'는 機能을 말하는 것으로 心臟에는 땀을 내는 機能이 있다는 것을 敎示하고 있다.

'精氣并于心則喜'의 '并'은 두 사람을 平等하게 나란히 세운 것을 나타내는 뜻을 지닌 會意文字로 馬二頭를 平等하게 나란히 늘어 놓는 것을 '駢', 男女가 나란히 가는 것을 '妍'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精氣并'이란 어떤 臟器에 虛의 狀態가 發生하였을 때, 그 虛한 場所에 다른 臟器의 精氣가 侵入하여 竝立狀態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五臟에는 各其의 精氣가 있기 때문에 다른 臟器의 精氣가 侵入하여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正常狀態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心이 虛한 곳에 다른 臟器의 精氣가 侵入할 境遇에는 一種의 興奮狀態를 惹起하여 이 때문에 心은 志를 統制하지 못하여 病的인 喜의 狀態를 招來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四,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邪弗能容也. 客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梭矣.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는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이나 <素問·宣明五氣篇>의 '心藏神', 또는 <素問·六節臟象論>에 '心者生之本. 神之處也'과 全部 같은 뜻이다. 卽 心臟은 五臟六腑를 主宰하는 地位에 있어 一切의 精神意識, 思惟活動은 心の 功能的인 表現이라고 하는 뜻이다.

'其藏堅固邪弗能容也'의 '容'은 '穴'과 '谷'을 組合한 文字로 穴속에 오목(凹)한 空虛가 存在, 物體가 들어갈 수 있는 餘裕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속에 넣는 것을 容이라 하고, 餘裕있는 量을 容量이라 한다.

이같은 觀點에서 '邪弗能容'이란 邪가 들어 갈 틈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心臟이라고 하는 臟器는 그 器質이 堅固하여 外邪가 들어가서 속에서 盤踞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五, 主明則下安. 主不明則十二官危.

'主'는 十二官의 君主의 뜻으로, 心을 指稱하고 있다. 이 心은 單純한 心臟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神을 藏하는 心臟을 말한다. 따라서 循環器로서의 心の

作用과 더불어 精神作用을 包含하고 있다.

‘明’은 普通 ‘밝다’로 解釋하고 있지만, 그 本義는 窓門에서 月光이 쏟아져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희미하게 浮出하는 것으로 明確하지 않는 것을 찾아 내는 빛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빛’, 그것이 곧 ‘明’인 것이다. 따라서 原專上에 ‘主明’이란, ‘主로 物體를 正確하게 보이게 하는 빛이 있다면’ 라는 뜻으로 換言하면, ‘一切의 事物을 正確하게 判斷하는 힘이 있다면’라는 意味인 것이다.

‘下安’의 ‘安’은 文字構成法則上에서 ‘宀’과 ‘女’를 組合한 文字로 女人을 집안에 넣고 달래서 安定시켜서 빈둥빈둥 나가 돌아 다니지 않도록 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安定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主不明則十二官危’이란 ‘主로 事物을 正確하게 理解하고 判斷하여 處理하는 技能이 없을 境遇에는 十二器官은 安定된 作用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心臟에 어떤 病變이 있거나 BALANCE의 異常變調가 發生하면, 다른 臟器의 活動에도 거기에 相當한 影響을 준다는 것으로 心臟의 作用」與否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病變을 惹起하는 것을 敎示하고 있다. <靈樞·口問篇>에 ‘夫百病之始生也, 皆生于風雨寒暑, 陰陽喜怒, 飲食居處. 大驚卒恐則血氣分離, 陰陽破散, 經絡厥絕, 脈道不通. 陰陽相逆, 衛氣稽留, 經脈虛空, 血氣不次. 乃失其常.’ (註 ‘一切의 疾病이 始作할 때는 모두 風雨寒暑 或은 陰陽의 失調, 或은 喜怒와 같은 感情의 激動 或은 飲食의 不節 또는 居所의 不適合에서 起因하는 것이다. 크게 놀라거나 突然 恐怖等에 逢着하면 血氣가 分離해서 相互의 循環運行에 支障을 招來 하거나 陰陽의 調和가 破壞되어 經絡의 流通이 杜絶되어 脈道는 閉鎖되어 不通을 가져와서 陰에 屬한 部分과 陽에 屬한 部分이 全部 逆行으로 不順하게되고 衛氣는 停滯되어 正常的으로 運行을 하지 않기 때문에 經脈은 虛空이 되어 버리고, 血氣運行의 順序도 圓滑치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一切의 生理機能은 正常狀態를 喪失하게된다’)라 敎示하여 人體는 自然과 環境으로 부터 分離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生命現象의 異常은 언제나 마음의 不安定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六, 手少陰氣絕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髮色不澤. 故其面黑如漆紫者血先死

手少陰의 氣한 心經의 脈氣를, ‘絶’이란 中斷을, ‘髮色不澤’이란 髮毛에 潤氣가 없는 것을, ‘漆紫’란 黑色을 身體가 여위어 있는 것을, ‘通’은 妨害없이 暢通하고 나

아가 出入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原典의 意義는 手少陰心經의 氣가 竭絶할 때는 脈이 不通되고 脈이 不通될 때는 脈中에 흐르고 있는 血流는 흐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血液은 全身에 周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頭髮의 光澤이 喪失되고, 面色은 暗黑이 되어 마치 漆柴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은 血이 먼저 죽은 것이다.

以上の 句節은 心の 生理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病理에 屬한 것이지만, 一面 心과 血脈과의 關係에 關聯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七. 心主舌. 心氣通于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心主舌'의 '心'은 心臟보다는 '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事物의 是非曲直을 判斷하는 것은 心の 役割로 그것을 口外로 表現하는 것은 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舌은 곧 心の 모습이라는 點에서 이처럼 해석하고 있다.

'心和則舌能知五味矣.'의 '心和'는 心の 機能이 正常狀態를 發揮하고 있을 때를 '五味'는 酸辛甘鹹苦의 五味를 '知'는 '舌'와 '口'를 組合한 文字로 舌와 같이 正鵠을 正確히 찌르는 것을 意味, '能히 五味를 判別한다' 卽 舌의 感覺이 正常的이라는 것을 表示한 것이다.

## IV. 結 論

原典에 表示되고 있는 心の 生理作用을 語源을 基礎로 檢證하여 본 바에 依하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가 있다.

1. 東洋醫學에 있어서 心이란, 現代醫學에 있어서 心臟의 作用과, 마음 卽 腦의 精神作用을 兼한 것 같은 生理作用을 가지고 있다.
2. 心은 君主의 官으로 人體生命活動의 主宰者인 것이다. 따라서 그 明否는 곧 다른 臟器의 活動과 健康에 影響을 준다.
3. 心은 血脈을 主管하고 身體의 구석구석까지 血液을 浸透시키는 것으로 그 華(狀態)는 面(顔面)에 나타난다.
4. 心の 狀態는 舌에 反映하고 있고, 또한 心氣는 舌에 通하여 있기 때



문에 心氣가 正常的인 機能을 하고 있을 때는 酸辛甘鹹苦의 五味를 判別할 수가 있다.

## 參 考 文 獻

1. 素問·靈蘭秘典論.
2. 素問·六節臟象論.
3. 素問·宣明五氣篇.
4. 靈樞·邪客篇.
5. 靈樞·經脈篇.
6. 素問·陰陽應象大論.
7. 靈樞·脈度篇.